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일들을 기록한 '기념책'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서, 소설, 시집, 수필집 등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대할 수 있듯이 천국에서도 그러하다. 천국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일들을 기록한 기념책 외에 또 다른 책들도 있다. 인간 경작의 역사들을 특징대로 분류한 책,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을 기록한 책,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 등 다양하다.

생명책과 기념책은 대부분 인간 경작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생명책이 인간 경작 역사의 총체적인 열매 목록이라 한다면, 기념책은 인간 경작의 열매 중 극상품에 해당하는 인물과 그 행적에 관한 기록이다. 이러한 책들을 살펴봄으로 훗날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교회 창립 29주년을 맞아 만민의 역사를 친히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천국의 생명책은 푸른색이 감도는 흰빛을 띠며 창세 이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백보좌 대심판의 증거 자료가 된다.

요한계시록 20:15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고, 시편 69:28에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했다. 요한계시록 3:5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이름이 흐려져 없어질 수 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마 7:21),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빌 2:12).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 마음을 닦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느냐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상급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간신히 구원받은 성도는 낙원에 이르지만, 주님 마음을 닦아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한 성도는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거할 소망으로 뜨겁게 달려가고 있다.



2002년 10월, 인도 타밀라두 주 첸나이 시(市) 마리아 해변에서 개최된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는 '강제 개종 금지 규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3백만 명이 참석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수많은 치료와 개종의 역사가 나타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또 나
죽은 자들이
보좌 앞
책들에
또 다른
곧 생
죽은 자들이
책들에
심판을
(계

“그 때
경외하는 자들
여호
그것을 분
여호와를
그 이름
생각하는
여호와
기념책에 기
(말